



第15回 發明教室 盛了

5月 11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5月 11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5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
- ...은 아마추어 發明家들이 參席하여 發明家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議應答...○
- ...을 통하여 아이디어 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 날 發明教室에서는 洪...○
- ...載日 辨理士의 아이디어 創出方法에 대한 講議에 이어 산타스 黃德亨 社長과...○
- ...(株) 모두람 沈載訓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가 있었다.○
- ... 두 發明人 社長の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生活속의 發明人

산타스 黃德亨 社長

多用途배낭의 50여건의 發明品을 考案한 산타스의 黃德亨社長(40)은 20여년을 고스라니 發明界에 投身한 숨은 發明人.

남달리 차분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性格때문에 주위에서도 그가 發明人 社長이라는 事實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항시 묵묵히 研究하고 開發하는 그의 發明品들은 하나 같이 그의 눈에 비친 不便한 點들을 改善한 生活必需品들이다.

그가 50여건의 發明品을 考案한 秘訣은 결코 어려운 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事物을 對

할 때마다 버릇처럼 ▲이것을 좀 크게하면 어떨까 ▲이것을 좀 작게하면 어떨까 ▲모양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이것과 저것을 합하면 어떨까 ▲不便한 點을 좀 便利하게 할 수 없을까 등을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소위 發明人이 되려면 ▲상식을 깨뜨리고 ▲상상력을 기르고 ▲아이디어에 미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強調했다.

그의 말처럼 그의 發明品들은 보통 사람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끈질기게 매달렸으면 충분히 發明해냈을 것들이다.

그것은 商品화된 그의 發明品 중의 하나인 多用途배낭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가 多用途 배낭을 생각해낸 것은 가족과 함께간 유원지에서였다. 서둘다가 그만 메트를 놓고 음식을 놓고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난처했을 때 메트를 겸한 배낭을 생각해냈고 그

것이 오늘의 多用途(배낭·메트·파라솔·침구우의) 배낭을 탄생시켰다.

이미 商品化된 「장난감점 보온젓병카바」도 외키는 아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젓먹이를 데리고 놀러와 젓병 보관 및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보관 및 보온이 편리한 젓병을 만들수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장난감으로까지 접할수 있는 보온젓병 카바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 젓병은 모 젓병會社에 3년간 獨占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또 외국바이어들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의 그의 發明品으로 代表的인 천자펜(잉크를 한번 찍으면 오래 쓸 수 있게한 펜앞의 장치), 多目的붓대(붓대 하나에 습자붓의 키고 작은 것과 미술붓의 크고 작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붓대), 피리 볼펜(볼펜으로도 사용하고 피리로도 사용하는 볼펜), 칼달린 연필(지우개 밑에 칼을 끼운 연필), 온도기(스위치만 올리고 수도 코크만 돌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도기) 등도 그는 모두 생활속에서 發明했다.

『50여건의 發明품중 좋은 것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모두 商品化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發明과 發明의 상품화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 같은 꿈을 펼쳤다.

發明을 싫어했던 發明人

(株)모두랑 沈 載訓 사장

최근 電子玩具業界에 무서운 發明人 社長으로 통하는 沈載訓사장(32)은 본래는 世上에서 發明을 가장 싫어했던 이색 發明人으로 더 유명하다.

『저역시 지금은 發明人이지만 저는 世上에서 發明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發明으로 成功한 그가 이 같은 말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뒤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의 父親은 집안에 研究室까지 갖추고 100억

이 넘는 發明을 한 發明人이었다. 얼핏 생각하면 發明人 社長인 그에게 더 없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지만 단 한건도 實用化되지 못한 發明에 빠져 가정적이지 못한 父親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은 기니조차 잇기 어려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피는 속일 수 없었다. 그는 대학 在學 중인 78年 취학전 어린이용 玩具인 「만능천재」와 초·중·고 학생용 玩具인 「만능키트」를 發明,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發明人이 되어 있었다.

모 大學 電子工學科를 졸업하고 모 研究所에 入所했으나 그의 몸에 흐르는 發明人의 피는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81年 그는 드디어 남들이 부러워 하는 직장인 모 研究所를 박차고 나와 「새싹」이라는 玩具회사를 설립, 자신의 發明品인 「만능천재」의 生産에 착수했다. 그러나 말이 會社지 무일푼으로 설립한 會社가 會社일리가 만무했다. 가파르기로 제품을 生産했으나 판로가 문제였다.

그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국의 玩具 소매상을 찾아 나섰다.

식사는 하루 한 끼가 고작이었다. 또 차비가 없어 봉천동에서 퇴계로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하는 역경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父親의 發明에 지친 母親의 反對와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기필코 成功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는 만능천재와 만능키트 공히 한 제품에 20件이 넘는 特許를 出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電子玩具를 開發하는데 成功했다.

그리고 이 成功은 지난 해 10月 신용보증기금 1억2천만원의 支援받게 하였고 곧 종업원 106명의 (株) 모두랑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

『저는 發明을 취미로 하지는 않습니다. 發明은 반드시 사업화해야 합니다. 또 發明은 죽음을 각오한 끈기로 임해야하며, 시장조사 및 판매방법도 發明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는 發明 못지 않게 經營面에서도 다부진 一面을 보여주었다. 또 國內市場은 이미 석권되었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世界市場을 석권하는 것인데 이 또한 시간문제라며 여유를 보였다. ㉞